

지속가능한 지역 축제 및 관광사업 개선
**교통 불편이 전북 관광 수입에
미치는 손실 분석 및 대안**

1조 시드코드: 조아진, 이연승, 곽수연(조장)

☰

전민일보

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지역 기획 오피니언 사람들

실시간 | 순창군 강귀원 씨, 불우이웃 위해 500만 원 성금 기탁 [한뉴스](#) | [칼럼] 수영복 입기

HOME > 사회 > 사회일반

한옥마을 주변 불법 주정차...주말마다 반복되는 교통 혼잡

김동민 기자 | 승인 2026.01.25 19:31 | 댓글 0



<https://youtu.be/cfh7yVEwxog?si=uQQs-L2anaMqEDY6>



전주한옥마을 관광의 이면: 주차난과 인프라의 한계

[문제] 주차 요금 역전 현상과 교통 혼잡



공영주차장이 민영보다 비싼 요금 체계



한옥마을 주요 주차장별 요금 경쟁력 비교

주차장 명칭	운영 주체	1시간 환산 요금	1일 주차권 요금
한옥마을 제1~3공영	전주시설공단	2,400원	14,400원
남부시장 주차장	공공/상인	1,200원	6,000원
동큰 상인회 주차장	상인회	1,800원	9,000원



주차 할인 혜택 전무 및 회전율 중심 행정

주차 면수 부족을 이유로 상점 이용 시 재공되는 할인권 발행을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.



주말마다 반복되는 불법 주정차와 안전 위협

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긴급 차장 진입 명예 및 브행자 사고 위험을 높립니다.

[원인 및 해결] 구조적 인프라 개선 전략



숙박 인프라 부족이 초래한 교통 과부하
전복 방문객의 54%가 친지 집에 머물며,
이는 교통 수요를 공영주차장으로 집중시킵니다.



IT 기반 스마트 주차 및 예약 시스템 도입
실시간 주차 정보 통합 앱과 사전 예약제를 통해
목적지 배회 차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



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셔틀 고도화

대규모 속박 시설을 유치하고 외각 주차장과
한옥마을 간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.

교통이 풀리면 지갑이 열린다: 전주 관광 수익 극대화 전략

스마트 교통 시스템과 MaaS로 전주한옥마을의 주차 및 교통 문제를 해결하여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 수익을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논리적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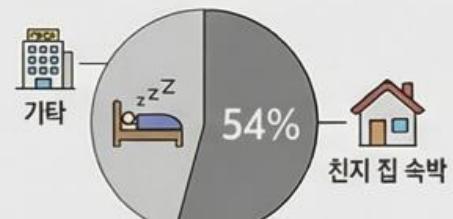
현재의 위기: 스쳐 가는 전주와 낮은 수익성



공영주차장 1일 요금
1일 요금 **14,400원**

인근 만영 주차장보다 비싼 요금과
할인 혜택 부재가 관광객의 실의적
자항을 유발합니다.

방문객 54%가 ‘비상업적 체류’



숙박 인도와 두둑과 교통 불편으로 인해
과반수 이상의 관광액이 천지 짐베 머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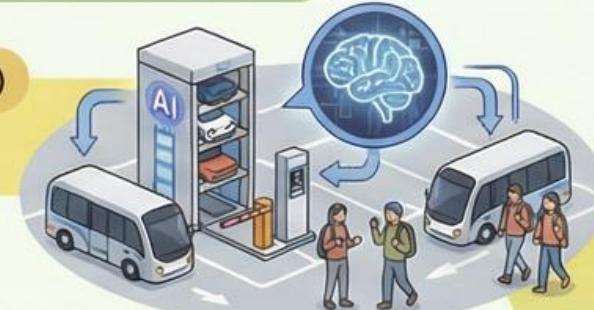
업체당 평균 매출액 **3억 원**



미래 전략: 교통 혁신을 통한 수익 극대화 프로세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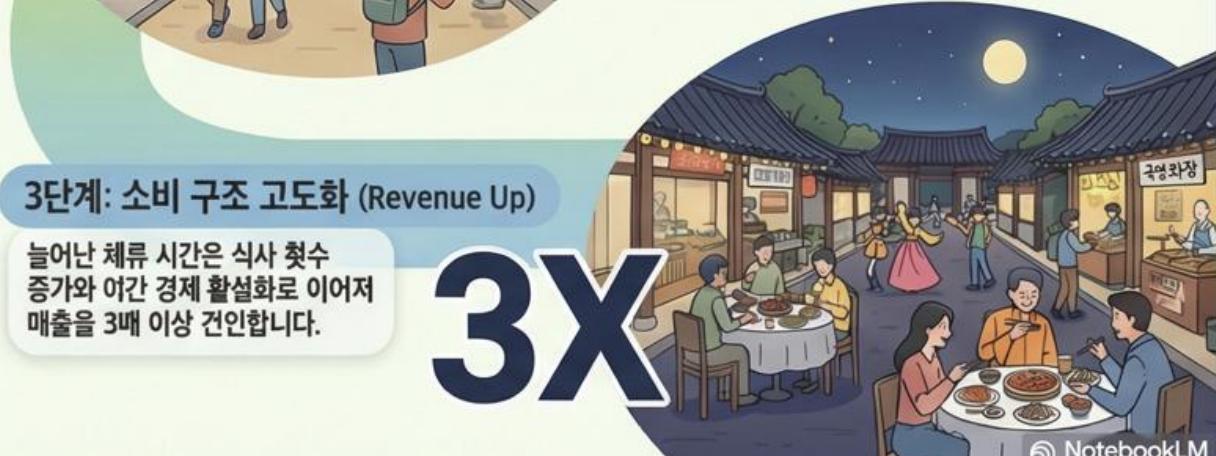
1단계: 진입 장벽 제거 (Barrier-Free)

AI 수오 관리와 외각 주차장 서를 연계로
주차 피로도와 비용 불안을 해소됩니다.



2단계: 체류 시간 연장 (Stay Longer)

교통 스트레스 감소는 당일되기 관광객을
'1박 2일' 체류형으로 관황하는
결정적 요인이 됩니다.



3단계: 소비 구조 고도화 (Revenue Up)

늘어난 체류 시간은 식사 횟수
증가와 어간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
매출을 3배 이상 견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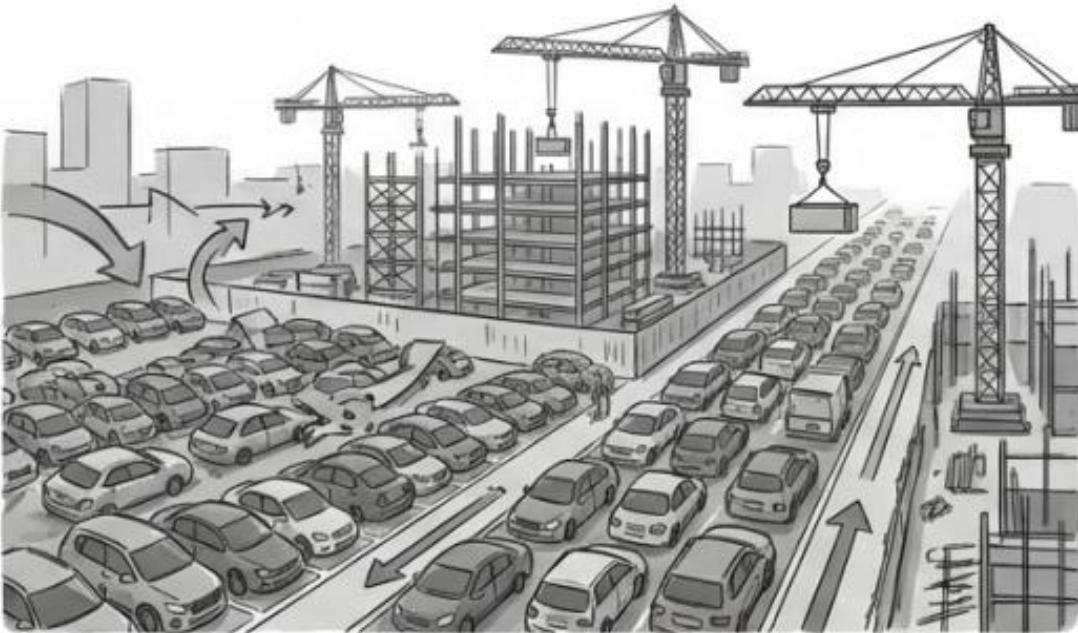
3X

전략의 전환: ‘주차 단속’에서 ‘관광 허브’로

AS-IS (기존)

물리적 주차면수 부족 호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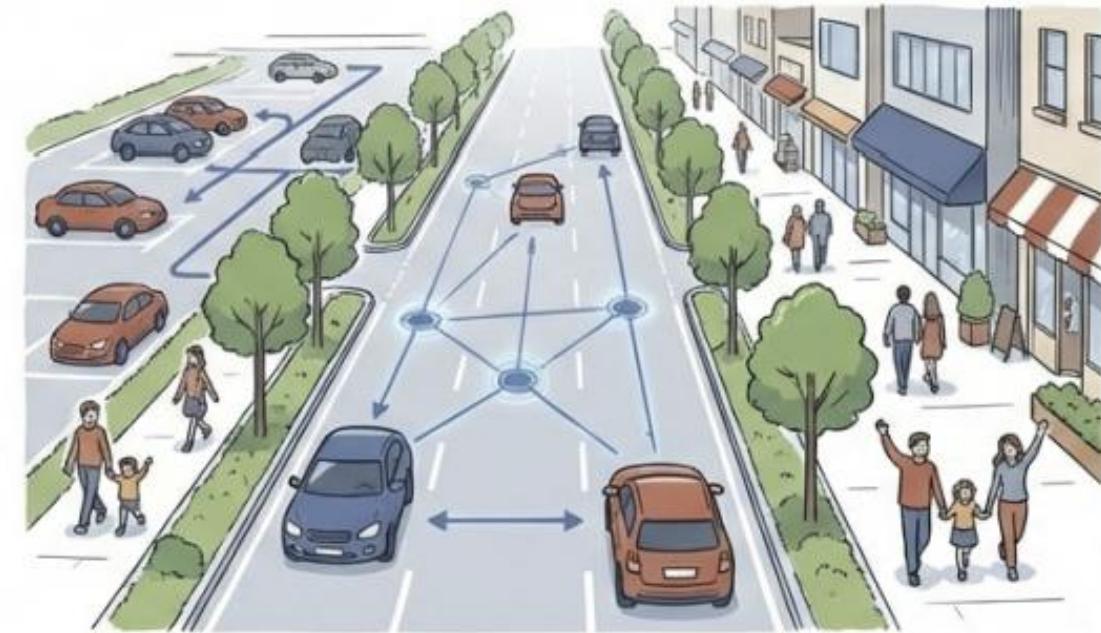
→ 고비용 주차 타워 건설 논의 → 교통 혼잡 가중



TO-BE (제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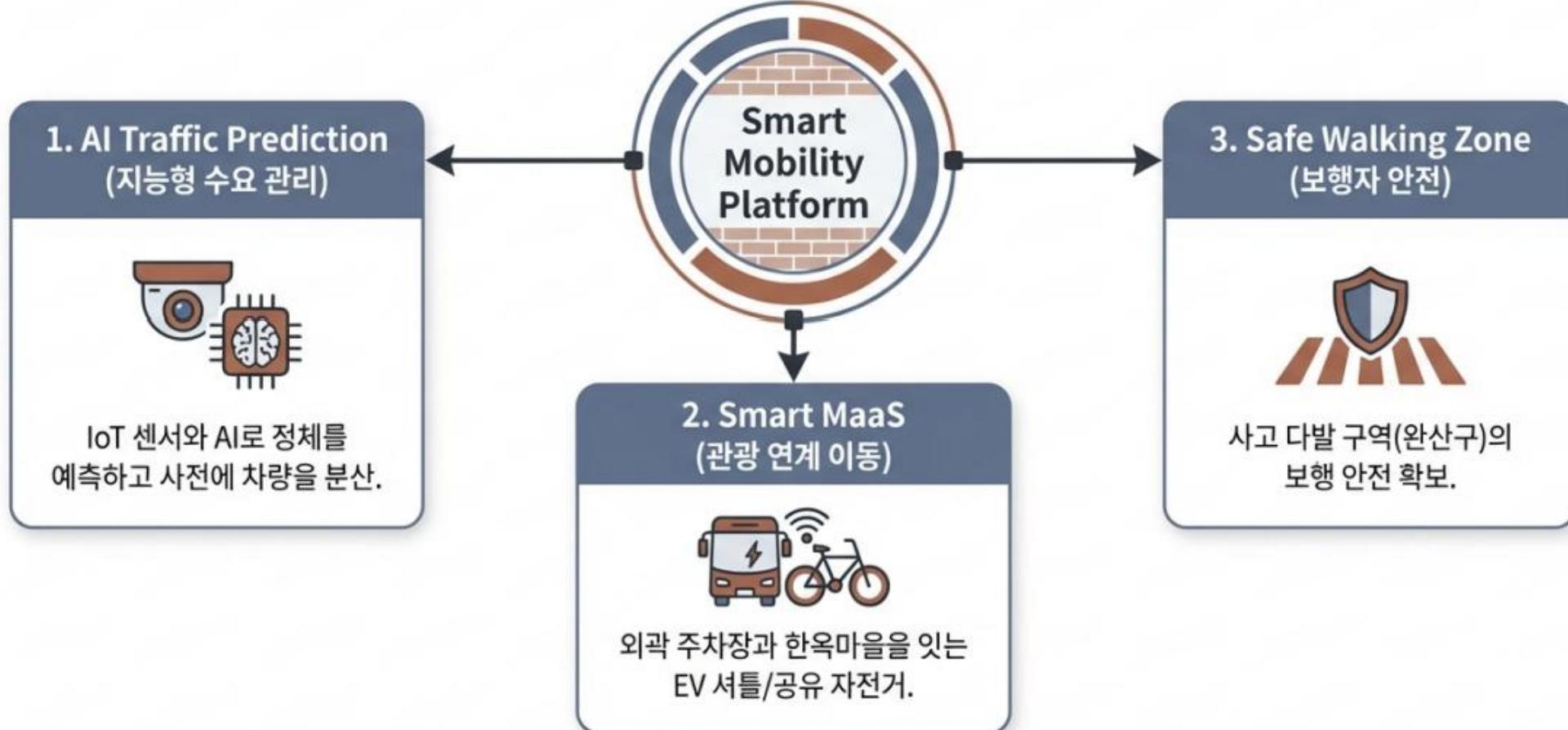
AI 기반 수요 관리(Demand Managemen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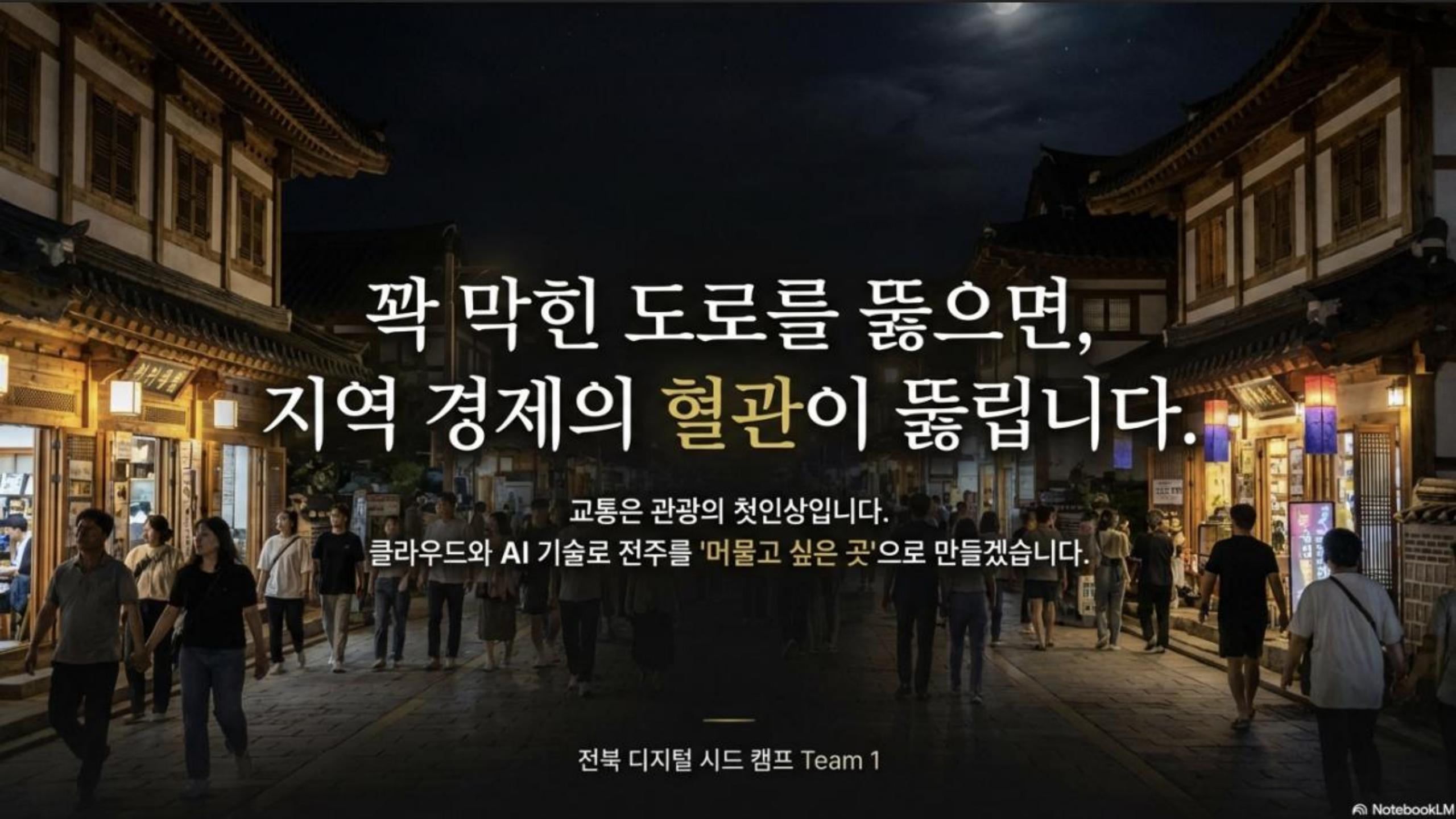
→ 차량 진입 억제 및 외곽 분산 →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



Core Value: 도로 위에서 버려지는 매몰 비용(Sunk Cost)을 지역 상점에서의 실질 소비(Actual Consumption)로 전환.

솔루션 개요: 전주 스마트 모빌리티 & AI IoT 플랫폼





꽉 막힌 도로를 뚫으면,
지역 경제의 혈관이 뚫립니다.

교통은 관광의 첫인상입니다.

클라우드와 AI 기술로 전주를 '머물고 싶은 곳'으로 만들겠습니다.

전북 디지털 시드 캠프 Team 1